

대만 돼지 사육두수 증가 추세

-5월말 현재 전년비 3.9% 증가한 679만두

대만의 돼지 사육두수가 97년 구제역 발생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만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 5월말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6,792,510두로 1년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번식돈은 872,867두로 3.9% 증가했고, 비육돈도 5,919,643두로 3.9% 증가했다. 이처럼 대만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후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폭등하기 시작, 6월 현재 가격은 두당 6,981원(한화 약 261,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만은 이 같은 높은 돼지가격이 계속되는 한 사육두수도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현지 전망에 따르면, 금년 가을까지는 높은 돼지가격이 지속되고, 돼지 증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 미국과 수출보조금 놓고 첨예 대립

-차기 WTO 협상에서 주요 이슈될 듯

미국과 EU가 올해 말에 시작되는 차기

WTO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최대 대립 이슈는 EU가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 국제시장과의 가격차를 맞추기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수출보조금 제도로,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는 지난 6월 하순 개최된 하원농업위원회에서 EU의 수출보조금이 세계 보조금 총액의 85%에 달한다고 밝히고 EU가 수출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EU는 이에 대해 미국정부가 보증해주는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제도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외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차기 교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의향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비닐하우스에서 돼지 시험 사육

최근 일본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돼지를 비육하는 새로운 방법이 실험중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식육통신사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양돈진흥회가 지난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이 비닐하우스에서의 돼지 비육은 기존의 양돈시설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도 1농가에서 추가로 시도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 비육은 왕겨, 톱밥 등의 발효재

를 바닥에 30~90cm 정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사육하는 방법으로, 거름을 반출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 따로 없어도 된다. 또 발효할 때의 열로 실온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파리 등의 발생도 줄어들어 작업장의 생력화를 가져오고, 악취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천국에 도축장수 총 299개

일본에는 현재 총 299개소의 도축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성이 금년 5월1일 현재 도축실태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도축장이 277개소, 간이 도축장이 22개소로 나타났으며, 도축장의 98년 도축실적은 소 1,332,557두, 돼지 16,735,384두였다.

미 미국양돈협회 정부에 6억달러 재정 국 지원 요구

-러시아 원조용 돼지고기 추가 구매도 건의

미국양돈협회(NPPC)는 클린턴 행정부에 돼지고기 구매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6억달러와 러시아 등의 원조용으로 돼지고기를 추가 구매해 줄 것을 7월 20일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6년 농가에 공적 규제를 해제한 후 지난해 5억9천만달러의 지원을 포함해 총 15억달러의 지원금을 육류 생산농가에 지원해왔다고 밝혔으나, NPPC는 15억달러중 10억달러 이상이 곡물을 생산하는 농가지원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미국내 돼지 가격은 100kg당 33.8달러로 지난달 대비 2.6달러 하락했으며, 작년에 비해서는 8.6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돼지가격 하락은 전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가 그 원

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832만불 지원

-미농무성, '99 MAP 예산 배정

미농무성(USDA)은 6월25일 미육류수출협회에 99년도(99.7-2000.6) 시장접근계획(MAP) 예산 832만불을 배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MAP 예산 총액은 9천만불로 작년과 같은데, 총 지원단체 65개중 미육류수출협회가 99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미육류수출협회는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기타 축산관련단체로는 미가금육·난수출협회에 330만불, 미유제품수출협회에 148만불이 지원된다.

MAP 예산은 미농무성이 해외시장 개척과 자국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 단체, 업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육가공장서도 HACCP 시행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내년 1월1일부터 10명 이하의 고용 인원을 갖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2백5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육가공공장에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술지원에 나섰다.

FSIS는 5개 주립대학에 자금을 지원, 모델공장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기술훈련과 관련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금년 여름에 HACCP 지침서와 비디오 테이프를 육가공 공장주에게 제공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조치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식품관련 질병예방을 위해 HACCP를 도입하고 있으며, 98년 1월부터 500명 이상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육가공장 300여개에 대해 HACCP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부터는 10명이상 499명 이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2,300개에 대해서도 HACCP제도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반기 돼지가격 약세 전망

미국의 금년 하반기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당초 생산량 감소로 금년 하반기부터 돼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이후 돼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생체 100kg당 66달러(약 77,9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돼지가격은 금년 1월에 37.4달러까지 폭락했으나, 그후 상승세를 보여 5월부터 6월에 걸쳐 88달러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그후 6월 중순에는 72.6~74.8달러까지 하락한후 7월 초순에는 66달러~72.6달러로 내렸다. 미국의 돼지가격 추세는 8월에도 7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9월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여름철보다는 약 11달러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U에 보복관세 적용 결정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보복

바세프스키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7월12일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EU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신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연간 손해액을 1억1,680만달러로 인정한 뒤 나온 것으로, 미국은 100%의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리스트를 공포해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U는 성장 촉진 호르몬을 사용하여 생산한 쇠고기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입금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WTO는 “수입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작년 2월에 개선 권고를 했지만, EU는 개선 기한인 금년 5월13일이 지나도록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았었다.

캐나다 98년 돼지고기 수출 7% 증가한 45만톤

캐나다가 98년에 수출한 돼지고기 양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5만톤이었다. 국별로는 미국에 21만4천톤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고, 일본에는 10% 증가한 8만톤, 중국에는 150% 증가한 1만3천톤을 수출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66% 감소한 4천7백톤, 러시아에는 28% 감소한 1만4천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증가한 것은 캐나다의 돼지가격 하락과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는 98년에 돼지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하고, 생산이 5% 증가한 132만톤을 기록하여 가격이 하락했다.

유럽산 육류에 관세 100% 부과

-자국산 호르몬 쇠고기 금수조치 보복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이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데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7월 29일 밝혔다.

보복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26일 미국과 캐나다가 특정 유럽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으며, 미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태국 금년들어 돼지가격 급상승

-98년초 가격폭락 이후 폭등세

지난 97년 10월 경제위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했던 태국의 돼지가격이 최근 급속히 회복, 경제위기 이전의 가격을 넘어섰다.

이같은 돼지가격 폭등은 97년 말부터 98년 전반에 걸쳐 많은 양돈농가가 경제위기로 자금회전 및 채산성이 악화돼 이농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돼지 생산두수가 극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00년까지 돼지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은 97년 9월에 kg당 40바트(1,300원, 1바트=32.50원 기준) 전후였던 100kg 기준 지육가격이 10월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98년 1월에는 30바트(975원) 이하로 떨어졌다. 또 97년 8월 이전에는 1두당 1천바트(32,500원)를 넘었던 자돈가격이 98년 1월에는 250바트(8,125원)까지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었다.

그러나, 생산두수가 감소됨에 따라, 98년 12월에는 다시 경제위기 이전 가격인 40바트로 올라섰으며, 지육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99년 6월 현재 kg당 50바트(1,625원)에 이르렀다. 자돈가격 또한 금년 4월 기준 1천5백바트(48,750원)에 달하고 있다.

벨기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1천8백억원 피해

-농장 1,000여곳 폐쇄

벨기에는 지난 3월 이후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농장 1,000여곳이 폐쇄됐으며, 1억5천만달

러(한화 약 1,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정부는 재발한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 다이옥신 오염이 의심되는 양계장과 양돈장 175곳을 추가로 폐쇄했으며, 관련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벨기에는 지방이 20% 이상 함유된 돼지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발암물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벨기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플리염화비페닐이 함유된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베르젤레스사는 지난 다이옥신 파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베르케스트사에서 동물성 지방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페루 돼지·소·면양에서 구제역 발생

페루정부는 7월20일 술라나와 아아바카 지방에서 돼지와 소, 면양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상재국인 에콰도르에서 인접지역인 술라나로 밀수된 가축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된 가축은 돼지 86두, 소 54두, 면양 21두로 총 161두가 구제역에 감염되었다.

페루정부는 감염된 가축을 즉각 살처분할 것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가죽, 머리, 뼈는 소각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내 가축 2만여두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

한편 페루는 지난 96년에 A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뒤에는 구제역이 근절돼 2년 3개월간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도 없었다. **양돈**

